

건강한 치주를 위한 심미수복물 finish line의 임상

이종엽 교수

성균관 의대 강북삼성병원 교수



일반적으로 finish line의 위치는 치은연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는 치은연 하부에 설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것은 우식에 대한 예방도 하면서 치관 수복물의 유지, 특히 전치부에서는 심미성을 저해하지 않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렇지만 치은연 하부에 finish line을 설정하는 것은 치은은 물론이고 치조골에 대해서도 침범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지대치 형성시에 생물학적 폭경을 침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즉, 지대치 형성 또는 인상채득을 위한 치은압배 조작시에 상피성 부착 또는 결합조직성 부착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파괴하게 된 경우는 치관수복물 변연이 생물학적 폭경을 침범한 위치에 설정되어 장착된다. 그리하여, 치관수복물의 주변 치은에 염증이 항상 존재하고 세균성 치태의 감염에 의하여 보다 고도의 염증이 야기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치주조직에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치은발적·종창·치조골 흡수·부착상실 등을 초래한다.

심미보철의 대표적인 시술법으로 PFM crown이 널리 보급되어 있으나, PFM crown의 금속 구조물 때문에 finishing line 근처의 dark line이나 shadow가 문제시 되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방법으로 제작기술에 변화를 주었으나 일반적으로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는 치은연하 가능한 깊은곳에 보철물의 margin을 둥근모서 자연감을 확보하려고 해왔다. 최근 심미보철물 제작시 투명감의 확보는 자연치의 심미성 표현에 가장 중요한 인자라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all ceramic crown을 임상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들 임상증례를 통해 볼 때 심미보철물이란 치은연하에 finish line을 설정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명감 좋은 광학적 특성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들은 치은연상의 finish line을 통해서 더욱 쉽게 확보될 수 있다. 본 강연에서는 실제 임상에 일어나는 finish line부근의 여러 상황들이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 되어질 수 있는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약력

서울치대졸업

서울치대 보철과 치의학박사

대한심미치과학회 회장

성균관 의대 강북삼성병원 교수